사찰도 물비상 '타는 목마름'

겨울가뭄 3개월째 지하수마저 '고갈 위기'

불자가정부터 발우공양 정신으로 절수를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있는 가운데 사찰에도 가뭄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현재 가뭄피해가 극심한 경남북 동해안 인근 사찰들은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이중고를 겪고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지관)는 본사를 비롯, 산내암자들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세면을 1일1회로 제한하고 식수확보에 주력하고있다. 산내암자인 백련암은 계곡물이 줄어 지하수를 개발했으나 이마져 고갈위기에 놓여있다.

포항 삼보사는 수도물공급이 중단돼 스님이 직접 물통을 가지고 계곡에서 식수를 떠오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도 지난 15일 종무회의를 통해 가뭄피해에 대비해 절수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전대중이 물절약에 들어갔다. 기획소임을 맡고있는 성천스님은 "대중들이 생활하는 사찰에서부터 절수생활을 하고있다"며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도 물 아껴쓰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겨울가뭄이 급속도로 중부지방에까지 북상하고 있어 물부족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는 전국에 걸쳐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약수터로 유명한 수도권지역 고지대 사찰의 가뭄피해도 심각하다. 서울 관악산 연주암의 경우 과천시청으로부터 매주 월, 금요일 2회에 걸쳐 식수차지원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관악산을 찾는 4~5천여명의 등산객들에게 보시하던 점심공양마저 일시중단한 상태이다. 연주암은 등산객을 상대로 절수운동 표말을 써붙이는 등 '절수' 홍보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한 강원도 산악지대와 부안 내소사를 비롯한 월명암등 서해안 일대의 산내암자들도 이미 식수난을 겪고있어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강원도 동해안 전북 부안등48개 시군에 이어 3월말까지 경기도 화성군등 30개 시군지역의 식수난이 예상된다고 밝혀 이에따른 교계차원의 효율적인 물절약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상청도 3~4월까지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큰비가 안온다고 관측하고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각 사찰의 스님들은 "가뭄극복을 위해 불자가정부터라도 발우공양을 생활화하여 물사용량과 폐수를 줄이는등 더불어사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주지 인사규정 입법예고

조계종 연수교육등 자격 강화

비구(니)계를 수지하지 않았거나 주지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스님은 앞으로 조계종 본말사 주지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은 연4회, 교구본사 주요관람료사찰은 연2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본·말사주지 인사규정'과 '감사국 직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육포교업적이 뛰어나거나 재임중 사찰등급을 2등급이상 상승시킨 스님을 우선 품신하는 품신특례조항(제7조)을 두고 최초로 주지 취임하는 스님은 주지연수교육을 받도록 했다(제9조).

또한 주지 자격에 있어 결격사유를 명시해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제11조). 주지 결격사유로는 △주지연수교육미달자 △재임중 분담금체납자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자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자 등이다.

총무원은 '감사국직무규정'에서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년 4회), 교구본사 주요관람료사찰(년 2회)의 감사정례화(제6조) △보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토지의 실지조사(제14조) 등을 골자로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정은 20일 경과후 종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된다.

청교련 '조계종 산하' 거부

예산지원 문서화 요구…'청소년의 해' 사업은 동참

'불교청소년의 해'가 공식 선포됐다. 하지만 가장 활기에 넘쳐 순항의 돛을 높이 달고 쾌속항해를 해야 할 청소년의 포교가 출발부터 순탄하지 못하다.

포교원과 청교련은 지난해 7월부터 청교련을 모태로 하는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결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5일 청교련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계종 산하단체화' 거부를 결의함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청교련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종단의 지속적 예산지원의 문건화를 조건으로 참여키로 하는 내용을 지난 18일 포교원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포교원은 총무원과의 예산협의 등의 어려움을 들어 문건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포교원측은 "청교련의 의지와 관계없이 종단 차원의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육성사업 추진은 확고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혀 단체 구성의 방향선회는 불가피하게 됐다.

청교련측은 "청소년 포교는 장기적인 지원은 물론 청소년 지도자 육성과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조직구성만을 서두르는 포교원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청교련은 결과에 관계없이 '불교청소년의 해' 각종 사업 동참은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청소년 단체 조직을 결성, 청소년 포교의 해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來 9일 대의원 총회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조기현)는 오는 2월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중앙사무국 및 지방조직 활성화등 현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신도회가 조직활성화를 모색하는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교청소년의 해' 선포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은 지난 23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40년 불교청소년 해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징 도안부문 박창렬 교사(동대부중)부부와 표어부문 이성구씨(청교련)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청소년봉사단 활동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주최한 청소년 불교청소년 지원봉사단 활동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천마재활원, 성우원, 정화양로원 등지에서 있었다.

방학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비의 실천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3백6명의 학생들이 동참해 거동이 불편한 원생들을 위해 빨래,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종무전산화 근거리통신망 설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7일 중앙종무기관 종합전산망 구축 첫단계인 근거리통신망(LAN)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 1일부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총무원은 2단계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업무전산화, 3단계 말사와 일반인 위한 정보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인가

조계종 교육원 올 사업 확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22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봉선사에 승려전문 교육기관인 능엄학림 설립을 인가하는등 '9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장 원산스님은 인사말에서 "금년을 교육제도 정립의 해로 정하고 △행자교육원 상설화 △기본교육 기관개편 △학림설립 △재교육 의무화 정착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종단의식통일과 전통의식 계승을 위해 어산학교를 개설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 전산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능엄학림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교육원회의를 열고 실상사 화엄학림에 이어 봉선사 능엄학림을 인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능엄학림은 월운스님을 학장으로 10인 이내의 학인을 선발, 금년 하안거 결제일에 개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봉선사 능엄학림준비위원회(위원장 운경스님)는 "능엄경의 종지를 중히 여긴 선대 운허스님의 유지에 따라 능엄학림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이밖에 장학금, 교육기관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전개하고 지방승가대(강원)의 현황과 역사를 정리, (가칭)강원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유지도 경내지 인정 금선사, 전통사찰 등록

지난해 전통사찰로 등록된 금선사(주지 법안)가 경내에 있는 국유지도 경내지로 지정받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 종로구청이 금선사에 보낸 '전통사찰(금선사) 경내지중 영업행위 금지구역 지정통보'에 따르면 사유지뿐 아니라 국유지도 경내지로 인정,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전통사찰 법당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유토지만 경내지로 인정받아 향후 경내지 지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법률서비스 실시

망실재산 환수·세금회계등 자문…수임료 종단서

조계종이 사찰과 산하단체의 법률문제를 도와주는 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세종합동법률사무소(대표 오성환)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조계종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사찰의 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 및 망실재산 환수 △사찰의 대표권 △불사 포교등 생활상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사찰의 세금 회계문제 등의 법률·세무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과 소송수행으로 종단산하의 사찰과 단체 관계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불교관련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비로 소모되는 정재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송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수임료는 종단에서 지불한다"고 말했다.

불전함 털이범 2명 마이산 탑사서 검거

사찰 불전함만 골라 범행을 저질러온 사찰 전문털이범 3명 중 2명이 지난 24일 마이산 탑사에서 붙잡혔다.

범인들은 봉고차를 이용하여 절단기, 지도를 갖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미 천은사와 백양사 내소사 화엄사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탑사 진성스님에 따르면 이들이 오후 4시경 산신각 불전함 열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불전을 훔쳤으며 이들이 갖고 다니던 지도에 대구 동화사 파계사 쌍계사 표시가 되어있어 다른 절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규교원 38명 인준 동국학원이사회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지난 23일 제 13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원 38명을 인준했다. 〈관련기사 4면〉

또 정관 변경건에서는 정교수의 임용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하고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동국대학은 지난 19일 제3캠퍼스(일산) 설립인가를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포교사 양성·재적사찰 갖기 전개

조계종 포교원

전국청소년단체 조직, 불교청소년캠프 등 불교청소년의 해 관련 사업을 비롯한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 새해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지난 22일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청소년포교 활성화와 포교사양성의 체계화 ▲신도등록 및 각급 신도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추진 △포교사 양성 및 지도관리 강화 △전문포교사 양성 △포교사고시 정착 및 강화 △재적사찰 갖기운동 및 신행혁신운동 전개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 △각급신도회 구성 △산하단체의 효율적 관리 △신행단체 재정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불교가 이 시대 밝히는 역할을 다하느냐는 포교에 달려 있다"며 "일선 포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禪茶一如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 다온 녹수청산

발걸음은 어느새 녹수청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차 한 잔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

따스한 차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따스함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찾은 손님을 맞이하듯
먼길 다녀온 자식을 대하듯
바로 그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오직 녹수청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따스함.
유달리 매운 바람에 옷깃을 여민 어느 날,
어느 새 발걸음은 녹수청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736-3782)

오시는 곳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소문에서 소문으로!

자비와 대광명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능한 불치병,난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일본에서 "오무라테스트"라 해서 새로운 질병 진단법으로 화재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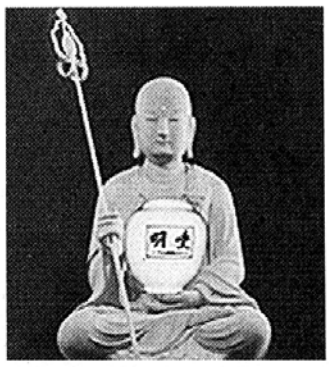
생명과학인 : 오-링 테스트는!

상담자의 오른손을 엄지와 인지로 맞대어 ○자 모양을 만들어 검사자는 정신적 능력으로 표준을 정하고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면 질병과 액운의 원인을 밝혀주며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증,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법현법사 특별상담!!—



조상묘지상담

모든 질환과 액운은 조상묘 때문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줌은 물론 극락정토에 이룩되게 하여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명당도예에 모시거나 묘지옆에 묻어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이 이루어진다.

■사찰에서 49제나 영가천도제를 하실 때는 영가를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하시면 편안한 영혼이 되어 극락왕생토록 할 것입니다.

■각 사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강의도 하여드리고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토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1)465-5100,467-5200

상담장소 : 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